

유무선 통신 업체, 종합상사 등 대거 진출

# 모든 비즈니스는 인터넷으로 통한다

최근 국내 인터넷 비즈니스 시장은 올해 600억원 규모로 확대되고 오는 2005년까지 연 200% 이상의 초고속 성장을 거듭, 2조 600억원대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전망에 힘입어 유무선 통신업체를 필두로 PC통신업계, 종합상사 등이 생존을 위해 하나 둘씩 인터넷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다.

■ 글/ 박민식 기자

## 유선통신업체, 초고속 인터넷 추진

유선통신업체는 유선 통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척하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앞세워 치열한 광고와 판촉행사를 벌이고 있다.

대표적인 통신업체인 한국통신은 계열사인 한국통신 하이텔과는 별도로 인터넷 기반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자체 인터넷인 코넷과 전화사업을 연계한 고속인터넷 및 전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데이콤도 최근 유선전화 위주의 서비스에서 탈피해 인터넷 기반의 종합 정보통신회사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다. 박치영 사장은 "2005년까지 천리안과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업에 필요한 시설확충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면서 "2001년에는 전체 매출액 중 인터넷·전자상거래·온라인 부문이 64%(9,600억원)로 올해의 31%보다 훨씬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 밝혔다.

하나로통신은 고속통신망을 활용한 인터넷 패키지 제공을 내세워 초고속 인터넷망 강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속 인터넷시장에 불을 붙인 하나로통신은 4월부터 시작한 상용서비스 제공 이후 가입자수가 최근 10만명을

넘어서는 등 급상승하고 있어 업계 경계 대상 1호로 지목되고 있다.

케이블망을 통해 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루넷도 최근 판촉 행사를 통해 1만 6천명이 새로 가입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무선통신업체, 모바일 인터넷으로 승부

유선업체와 더불어 SK텔레콤, 한통프리텔, 신세기통신, 한솔PCS, LG텔레콤, 서울이동통신 등 이동전화 및 무선호출 업체들도 인터넷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SK텔레콤은 '사이버넷'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입자가 노트북 컴퓨터와 개인정보단말기 등을 연결하면 인터넷 접속이나 이메일 송수신 등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다양화했다.

한통프리텔은 휴대전화만으로 직접 인터넷에 연결해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핸디넷'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도 월 100만건을 넘어서고 있다.

신세기통신도 고객만족 경영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무선데이터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한솔PCS도 인터넷을 주력사업으로 육성해 21세기에 생활정보통신그룹으로



도약한다는 '밀레니엄 정보통신 뉴비전'을 발표했다.

LG텔레콤은 이미 삼성물산과 제휴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전자상거래 체제를 구축했으며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검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또한 무선호출기 사업자인 서울이동통신은 최근 사이버증권, 인터넷 쇼핑물 등을 위주로 한 인터넷사업에 진출하기로 선언하고 인터넷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사내에서 15명을 선발해 사업 1, 2팀으로 조직을 정비했다. 서울이통은 무선호출망을 기반으로 무선데이터 및 무선인터넷서비스를 추진, 하반기에 상용화되는 양방향 무선호출과 연계해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나래이동통신도 조만간 무선호출과 인터넷사업을 연계하는 서비스체제 구축에 나설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유무선 통신업체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 PC통신업체, 인터넷 포털서비스 추구

유무선 통신업체들이 인터넷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PC통신 업체들은 사업기반을 인터넷 환경에 맞도록 속속 전환하고 있다.

천리안은 올 연말까지 인터넷 기반 서비스 체제로 전환하고 2000년까지 포털서비스를 완성하는 한편 천리안 01421망을 전국 144개 지역으로 늘려 1천만명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하이텔, 유니텔도 인터넷 종합회사로의 변신을 선언했다. 하이텔은 PC통신과 인터넷간 경계가 사라졌다는 판단아래 하이텔 서비스를 인터넷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말부터 인터넷 기반의 차세대 멀티미디어 서비스인 '하이텔 2000'을 시범 제공한다는 방침아래 올해 초 하이텔 인터넷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했다.

유니텔도 내부적으로 인터넷 종합회사의 면모를 갖추기로 하고 회사의 모든 통신 서비스를 인터넷 중심으로 재편하고 포털서비스를 선언했으며, 나우누리도 최근 새로운 홈페이지와 더불어 검색서비스 '아자!'를 제공하면서 인터넷사업에 뛰어 들었다.

(표) 인터넷 비즈니스 구분

구분	내용	사업의 예
인터넷 신산업	인터넷을 비즈니스 대상으로 하여 새롭게 탄생되는 사업	Portal 서비스
인터넷 활용산업	인터넷을 산업활동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파생되는 사업 (일부의 기존산업의 영역을 잠식·대체하며 발전)	전자상거래(EC) 인터넷 금융 인터넷 교육(Cyber School) 인터넷 미디어(전화/방송)
인터넷 지원산업		통신 네트워크 운영사업 인터넷 장비 제조업

### 종합상사, 쇼핑물 및 인터넷 무역시스템 추진

지금까지 인터넷과 많은 연관이 없었던 대기업의 종합상사들도 인터넷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종합상사의 인터넷무역시스템 도입으로 시작된 종합상사의 인터넷 열기가 올들어 삼성물산, (주)대우, SK상사, LG상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삼성물산은 인터넷 관련사업을 21세기 핵심전략 사업으로 선정해 기존의 인터넷 쇼핑물 사업과 별도로 인터넷 무역, 정보제공,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등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아마존, 아메리칸 온라인(AOL) 등 미국의 인터넷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인터넷 사업 진출도 꾀하고 있다.

현대종합상사는 최근 세계 최대 무역사이트인 글로벌 마트와 공동으로 인터넷 무역을 추진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아시안 소시스' 등과 같은 무역전문 인터넷 사이트와의 제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대우는 해외바이어와 국내 생산업체를 직접 연결하는 인터넷상거래 시스템인 '트레이드 윈도'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LG상사도 곧 인터넷 무역에 뛰어들 계획이다. SK상사는 미국의 MBE와 제휴를 맺어 인터넷 사업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인터넷 비즈니스 붐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인터넷은 제2의 산업혁명이라고 불릴 정도로 영향력이 막대하다"고 하면서 "기업에게 이제 인터넷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